

종합·해설

민주 재보선 호남 공천 골머리

정동영 출마 예고·한광옥 완산감 출마 선언

당지도부 "개혁공천 해약" 외부 카드 물색

민주당이 4·29 재보선 준비에 나섰다. '타협'이 호남의 유일한 국회의원 선거지역인 전주 공천 문제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출마를 예고하고 한광옥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가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들에 대한 처리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다.

전주지역 공천은 인천 부평을 공천과 함께 이번 재보선 공천 성공 여부 시금석이 될 뿐 아니라 향후 정국 구도와 당내 권력 질서를 재편할 정도로 폭발력을 가지고 있어 당 지도부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옛 지역구인 전주 덕진 출마설이 나도는 정 전 장관은 최종 결단이 임

박한 상태이며 한 전 대표는 5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 완산감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지도부도 내부 중 공천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재보선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공심위는 이미경 사무총장을 포함, 7~9명 가량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7~9명 가량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7~9명 가량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7~9명 가량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당 지도부는 이들 거물의 출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승부처인 수도권에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참신한 인물을 내세우 '개혁공천'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논리다. 지도부가 외부 카드 물색에 공을 들

각에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유재만 변호사,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교수 등이 거론된다.

다. 더욱이 당 지도부는 두 거물의 복귀가 당과 국민에게 주는 뚜렷한 메시지를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인적 정치적 영달을 위한 정치행보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정동영 전 장관 등의 무게감을 감안할 때 공천배제에 대한 현실적 부담감도 없지 않다. 이들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경우 당내 분란도 예상된다.

정세현 대표가 정 전 장관의 공천을 막는다면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약해지는 것을 피하기위한 것이라 비판을 면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당심과 민심을 거스르는 선택도 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정 대표의 한 측근은 "이번 공천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정 대표가 민심이라는 원칙에 충실한 공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장관측 인사는 "출마를 결심한다면 무소속 출마라는 최

의 상황까지 대비하는 각오여야 할 것"이라고 당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다.

한편, 한광옥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는 이날 "지역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 진출하면 지난 30여 년간의 정치경험과 국민의 정부 시절 국정운영 경험 등을 바탕으로 전복과 전주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

"사회기구 의견 참고" "여론조사 필요"

여야, 미디어법 여론수렴 방식 이견

여야가 최대 쟁점 미디어 관련 법 심의를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지만 기구 성격과 국민 여론수렴 방식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주의 모임 등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2일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사이버 모욕죄) 논의를 위해 자문기구인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여론수렴을 거친 뒤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같이 합의문을 작성했지만 '여론수렴'이라는 문구를 놓고 또다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 사회적 논의기구

가 구속력 없는 자문기구로서 100일간 논의되는 의견을 참고해 국회가 표결처리를 통해 결정하면 된다는 입장지만, 민주당은 표결처리에 앞서 여론수렴이 대전제인 만큼 여론조사를 비롯한 과학적 방법으로 국민 의사를 물어야 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5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에서 "자문기구는 구속력이 없으며 거기서 합의된 여론이 있다면 참고하고 받아들이" 부분은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기구의 의견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5일 정경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여론 수렴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의 명칭 및 여야 추천비율 등 구체적인 구성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입동욱 기자 tum@

지역 국회의원들 해외로 해외로

엑스포 참가 유치·재외국민 투표법 설명

2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고 3월 한달 휴회에 들어가면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의원외교를 위해 해외로 나가고 있다.

지난해 5월 제18대 국회가 문을 연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사태', '입법전쟁' 등으로 사실상 휴회 기간 없이 여의도와 지역구를 오가던 의원들이 오랜만에 한숨 돌릴 시간을 벌었기 때문이다.

우선 2012여수엑스포특위 민주당 간사인 주승용 의원이 특위 위원장인 같은 당 강봉균 의원, 한나라당 주성영·김재경 의원 등과 함께 여수엑스포 참가를 요청하기 위해 지난 3일 멕시코로 출국했다. 주 의원 등은 오는 12일까지 베네수엘라와 과테말라를 방문, 각각 외교장관과 의회외장 등을 면담하며 참가 유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인 같은 당 정장선 의원, 역시 지식위원인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 등과 함께 5일 대만으로 출국했다. 이들은 부총통, 경제부·외교부 차관을

면담하고 중소기업차·중소기업협회 등을 방문한 뒤 8일 귀국한다.

예결특위위원장인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예결위원장인 한나라당 이합구 의원 등과 함께 5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들은 미국과 일본을 방문, 미국 연방준비은행(FRB : Federal Reserve Banks) 등을 찾아 예산결산 전문가를 면담하고 14일 귀국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서갑원 의원은 여야 법안처리 협상 과정에서 협상 대상이었던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과 함께 오는 11일께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방문, 일주일 일정으로 현지 한국인과 재외국민 투표법에 관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여야 상생에 대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일치를 위한 정치 모임' 소속의 민주당 김성근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이달 중순께 이탈리아,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한나라당 김성희 의원과 함께 몽골 국방장관 초청으로 이달 중순께 몽골을 각각 방문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있는 것 많은 정치하지 마라"

노 전 대통령 흠피 통해 밝혀

노무현 전 대통령이 5일 자신의 홈페이지 '사람 사는 세상'을 통해 '정치인을 위한 변명'을 했다. 지난해 말 법원 판결이 확정된 노 전 대통령이 지난해 13일 홈페이지에 "형량이 재판을 받고 있는 마당이니 국민에게 오로지 송구스러울 따름"이라고 발언을 연 뒤 두 달 넘게 이어온 침묵을 깬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인터넷 정치'를 재개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정치하지 마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치하지 마라" 이 말은 제가 요즈음 사람들에게서 자주 하는 말이다. 농담이 아니라 진담으로 하는 말이다. "일치를 위한 정치 모임" 소속의 민주당 김성근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이달 중순께 이탈리아,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한나라당 김성희 의원과 함께 몽골 국방장관 초청으로 이달 중순께 몽골을 각각 방문한다.

그는 "정치를 하는 목적이 권세나 명성을 좇아서 하는 것이아

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래서 도 성공을 위하여 쏟아야 하는 노력과 감수해야 하는 부담을 생각하면 권세와 명성은 실속이 없고 그나마 너그러워야 되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웃과 공동체, 그리고 역사를 위하여, 가치 있는 뭔가를 이루고자 정치에 뛰어든 사람이라면, 한참을 지나고 나서 그가 이룬 결과가 생각보다 보잘것 없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며 "열심히 싸우고, 허물고, 쌓아 올리면서 긴 세월을 달려왔지만, 그 흔적은 희미하고, 뚜렷하게 남아 있는 것은 실패의 기록 뿐, 우리가 추구하던 목표는 그냥 저 멀리 있을 뿐"이라고 회한을 드러냈다. /박지경기자 jkpark@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이 '차명진 의원 폭행' 사건은 오히려 민주당 당직자가 피해자라며 사진본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국회폭행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검찰, 폭력의원 줄소환

차명진의원 폭행사건 수사 본격화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폭력 행위에 대해 정부가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이 지난해 12월 국회 폭력사태에 연루된 국회의원들에게 무더기로 소환을 통보하고 지난 1일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 폭력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5일 이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민주당 문화진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한나

라당 박진 의원에게 오는 10일 경찰에 출석해 줄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강기적 의원과 한나라당 신지호, 구상현 의원에게는 9일 경찰에서 조사받으라고 요청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한나라당 권경석 위원장의 입을 막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신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의사행위를 방해한 혐의로 각각 고발됐다. 다른 의원들은

같은 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상정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회의장 진입을 막은 혐의로 고발당했다.

한편 지난 1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고소된 민주당 당직자 신모씨가 5일 소환에 불응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신씨에게 6일 나와달라고 재통보했으며, 한두 차례 더 소환 요구를 한 뒤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검찰은 4일 피해자 및 고소인 자격으로 차 의원을 불러 폭행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을 받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경 찰 전국 최강의 교수진 합격 보장! 전문 시스템 현장 안면선

개강 3월 2일(종합 및 문제풀이)

※합격시스템

6개월과정
•2개월 완성 3회 반복 학습
•영어 기본이 된 수강생 한화
•수강료 25% D/C

1년과정
•2개월 완성 6회 반복학습
•영어 기본이 안된 수강생 한화
•수강료 50% D/C 교재 25% D/C

순경공제

•남-1차: 966명 2차: 214명
•여-1차: 40명 2차: 47명
•101단-1차: 120명 2차: 120명

특 계

•전의경 특제 240명
•경찰 행정학과 특제 100명
•경찰 특경대 특제 38명

※ 종합 1개월 : 16만원 · 문제풀이 1개월 : 13만원 · 단과 : 9만원

경 찰 전문 메가경찰학원 www.gmega.co.kr
전남여고 후문 학원가 ☎ 226-5050

= 합격은 앞서간 수험생들의 선택 "역시" 無等이었습니 =

7.9 급 공무원 對備 對전

9급 적중문제풀이 4주 완성 | 4주 정형무채서원찰약공정호건호지방술

소 방 직

• 서울 903, 부산 251, 대구 100, 인천 383, 광주 88
• 대전 105, 울산 66, 경기 630, 강원 160, 충북 162
• 충남 348, 전북 206, 전남 238, 경북 216, 경남 316

개 강

3월 2일(주-아래보모) (현재예약접수중)

• 사정최다모집예정
• 단과반: 이름표 이수면

무등고시학원 www.mdgosl.co.kr 광주 동부서 뒤 (중앙초교 후문) ☎ 222-4560

★★★ 불황을 이겨내는 방법? 전문가자격증 준비!! ★★★

공인증개사 10월 25일 시험

여성 최고의 유망 전문직 **주택관리사 9월 20일 시험**

최강의 교수진 "저자직장" **광주고시학원**
전원 서울에서 출강!

3월 2일 (첫전도시작반)

직장인 수강료 환급 | 본원 ☎ 227-8003 전남여고 맞은편 3층
국비지원 선착순 | 협단점 ☎ 971-0002 광주은행 첨단점 4층

건설면허

- ▶ 건설업 양도 양수
- ▶ 건설업 구조조정(분할 / 합병)
- ▶ 신규취득 / 기업진단

부성 M & A ☎ 02)773-5690~1